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인간의 성경 수용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중 '인간의 성경 수용'. 다음 장이 40장이므로 39장으로 보이며, 쪽은 431~434 무렵이다(쪽 표시가 일부만 있어 확인 필요).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이 장의 자리를 밝힌다. 성경 말씀은 사본, 번역, 신학, 신앙고백서 같은 여러 통로를 거쳐 우리에게 온다. 그 끝에서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다. 이어서 계시는 사람이 믿어 주어야만 계시가 되느냐는 논쟁을 다시 꺼낸다. 프레임은 계시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참으로 있고, 거절당해도 계시라고 답한다. 그다음에는 말씀을 받는 이가 누구인지 넓게 살핀다. 삼위 하나님 서로, 자연, 천사, 인류가 모두 그 대상이다. 끝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용을 믿음·순종·참여 세 측면으로 설명한다. 우리가 받은 능력을 쓰되 성령의 은혜로만 바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담은 성경이 모든 계시를 읽는 '안경'이라는 것으로 장을 맺는다.

📜 절별 정리

(원문에 소제목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다섯 절로 나눴다.)

📜 1. 성경 수용의 자리: 말씀이 오는 긴 길의 끝

프레임은 33장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일어나는 사건 목록'을 제시했고, 이 장은 그 목록 가운데 '사람이 받아들이는 일'을 다룬다. 그는 이 목록이 꼭 시간 순서는 아니라고 먼저 밝힌다.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일은 사본이나 번역, 신학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필사자, 설교자, 교사, 청중도 모두 저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독자에게 말씀이 닿는 과정만 놓고 보면 목록은

성경의 메시지를 받는다. 프레임의 요점은 이것이다. 이런 통로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1. 이 장은 33장 '사건 목록'의 이어지는 부분
2. 목록은 엄밀한 시간 순서가 아님
3. 수용은 사본·번역보다 먼저 시작됨
4. 오늘 우리는 번역·신학·고백서를 거쳐 받음
5. 그 통로로 하나님이 말씀을 건네심

> **(이 절에는 저자가 인용한 구절이 없음)**
> 이 장 전체의 위치를 잡는 도입부

📜 2. 계시는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계시인가: 세 가지 구분

6장에서 다룬 논쟁이 다시 나온다. 계시가 믿음의 반응과 따로 존재하느냐는 논쟁이다. 프레임은 세 가지를 구분하자고 한다. 첫째는 객관적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알도록 내놓으신 계시로,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 자연과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에서 그렇다. 둘째는 불신앙으로 받은 계시다. 로마서 1장은 사람들이 자연계시를 억누른다고 말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절과 반역에 대해 선지자와 예수님,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장면이 아주 많다. 이것도 참된 계시이고, 듣는 이가 믿지 않아도 계시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 셋째는 믿음으로 받은 계시다. 어떤 이들은 이것만이 참된 계시라고 주장한다. 믿음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통이 실패한 것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프레임은 정의상 믿음을 일으키는 계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앞의 두 종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답한다. 오히려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 자체가 마음을 굳게 하고 핑계를 빼앗는 데 있을 때도 있다.

1. 계시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존재
2. 거절당한 계시도 참된 계시
3. 불신자는 핑계할 수 없음

5. 하나님이 마음을 굳게 하시는 때도 있음

로마서 1:18-32 (로마서 1장)

사람이 자연계시를 억누른다: 불신앙 속 수용의 대표 예

로마서 1:18-32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

로마서 1:20

계시가 분명히 있으므로 거절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1:27

아들이 계시하시는 자만 아버지를 안다: 믿음을 일으키는 계시가 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1:17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받게 하는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마태복음 13:14-15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해 비유의 목적을 설명: 같은 원리가 예수님 사역에도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8:25-27

바울이 같은 말씀을 인용: 사도 시대에도 같은 원리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원문의 '기억할 문장'은 5절에 둔다)

📜 3. 누가 말씀을 받는가: 삼위 하나님에서 온 세상까지

앞의 구분을 바탕으로 프레임은 말씀을 받는 이들을 넓게 살핀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신 시편의 선언, 아들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그 예다. 말씀은 자연 세계에도 주어진다. 하나님이 바다와 땅과 생물에게 명령하신다. 천사들도 말씀을 받고, 인류도 처음부터 말씀을 받았다. 복음은 먼저 사도들에게 주어졌지만, 주님은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명하신다. 결국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간다.

1. 삼위 하나님 사이에도 대화가 있음
2. 자연·천사·인류도 말씀을 받음
3. 사도가 받은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함
4.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으로 퍼짐

> **창세기 1:26**
> “우리가 만들자”: 삼위 사이의 대화
>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시편 2:7-9**
>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권을 선언하심
>
> 7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 **시편 45:6-8**
>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위격 사이의 말씀
>
> 6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7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8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시편 110편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

시편 110장 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

마태복음 11:25-27

아들의 기도와 아버지·아들 사이의 서로 앎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34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 행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5:20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요한복음 6:38-39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 내려오심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1-26

아들이 아버지께 드린 긴 기도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

사도행전 2:33-36

아버지가 성령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심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창세기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20

물과 하늘의 생물을 향한 명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창세기 1:22

생물에게 복을 말씀하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24

땅에게 명령하심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23:20

천사를 보내 길을 지키게 하심: 천사가 말씀을 받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다니엘 3:28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종들을 구하심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창세기 1:28-30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과 복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로마서 1:18

모든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계시(진노의 계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마태복음 28:19-20

사도들이 받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4.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용: 믿음·순종·참여

하나님은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실까? 프레임은 자기 신학의 두 틀로 답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세 관점(규범·상황·실존)이다. 첫째는 믿음이고, 규범적 측면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큰일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면 우리는 그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 복의 약속이든 심판의 경고든 그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순종이고, 상황적 측면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신다. 그 언어들이 사람을 바꾸는 섬세한 방식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먼저 두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에 매달리는지를 바꾼다. 프레임은 괄호 속에서 하나를 덧붙인다. 믿음이나 순종 가운데 하나만 잡아도 그것을 우리 반응 전체를 보는 관점으로 삼을 수 있다. 세 측면이 서로 칸막이로 나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1. 믿음: 하나님의 설명을 그대로 받음
2. 순종: 명령을 따지지 않고 따름
3. 참여: 시·비유로 마음이 바뀜
4. 말씀은 감정·우선순위·시각을 바꿈
5. 목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 **(이 절에는 저자가 인용한 구절이 없음)**
> 프레임의 신학 체계(관점주의)로 설명하는 부분

📜 5.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 받은 능력, 죄, 그리고 성령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곧 읽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으로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 데 지성과 감정이 실제로 쓰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은혜 없이는 이 능력을 바르게 쓸 수 없다. 우리가 진리를 억누르지 않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게, 마음을 굳히지 않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 말씀이 주는 복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 순서도 있다. 먼저 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다음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용서를 보게 하신다. 성령의 사역은 42장에서 자세히 다룬다고 프레임은 덧붙인다. 그래서 프레임은 결론짓는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한다. 복음을 담은 성경은 모든 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성경은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보게 해 주는 안경이다.

1. 읽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으로 받음

4. 먼저 죄를, 다음에 용서를 보게 하심
5. 성경은 모든 계시를 보는 안경

> **로마서 1:18**
> 사람이 진리를 억누른다: 성령이 이것을 막으신다 (번역본에는 '1:25'로 되어 있으나 '억누름'은 1:18의 내용)
>
>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로마서 1:25**
>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성령 없이 생기는 왜곡
>
>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 **이사야 6:9-10**
> 마음이 굳어짐: 성령이 이것을 막으신다
>
>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경(spectacles)이다."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이다.

객관적 계시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알 수 있게 내놓으신 계시다. 자연과 성경이 여기에 속한다.

주관적 계시(주관적 수용)
계시가 실제로 한 사람 안에 받아들여진 상태다.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불신앙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자연계시
창조 세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앎이다(일반계시라고도 함).

강퍅하게 함
말씀을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상태다.

삼위일체 위격 간의 교통
아버지·아들·성령이 서로 말씀하고 뜻을 주고받으시는 것이다.

주권적 속성(주되심의 속성)
프레임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정리하는 세 특징이다. 다스리는 능력, 말씀의 권위, 함께하시는 임재를 말한다.

세 관점(관점주의)
같은 대상을 규범(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상황(세상과 형편)·실존(나 자신의 마음) 세 방향에서 함께 보는 프레임의 방법이다.

명제적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정보 문장'의 형태라는 뜻이다.

인식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아는지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 말씀은 사본·번역·신학 같은 통로를 거쳐 오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신다.
- 계시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참으로 있으며, 거절당해도 계시다. 그래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 하나님은 믿음(규범), 순종(상황), 참여(실존)로 말씀을 받기를 바라신다. 목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다.
- 우리는 받은 능력으로 말씀을 받지만, 죄 때문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 바르게 받는다.
- 복음을 담은 성경은 모든 계시를 바로 읽게 하는 안경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1편 · 종이에서 마음으로 · 설교, 성례, 마음에 쓰기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